

민주 시·도위원장 물밑경쟁 치열

대표경선 앞두고 계파간 자리 다툼 광주시당, 재선 김동철 의원 유력 전남도당, 우윤근·주승용 의원 경쟁

내달 6일 치러지는 통합민주당의 대표경선을 한달여 앞두고 시·도당 위원장을 차지하기 위한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이번에 선출되는 시·도당위원장은 대표경선 표심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데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당내 계파 간에 치열한 자리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광주시당위원장은 재선의 김동철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쪽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일부에서 추대 움직임까지 감지되는 등 박주선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박 의원이 최근 최고위원 겸선 출마 결심을 굳히고 또 다른 재선의 강기정 의원이 양보하면서 김 의원이 유리한 고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남도당위원장을 놓고서는 서갑원, 우윤근, 주승용, 최인기 의원 등 재선 의원들이 경쟁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서 의원은 수석부대표를 맡고 있고 최 의원은 최고위원 도전을 고려중이어서 우, 주 두 의원 간의 경쟁으로 압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우 의

원은 도당 위원장 도전에 소극적인 상황이고 주 의원의 경우 2년 후 전남지사 경선 참여설이 돌면서 주변의 견제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당위원장의 경우 3선의 강

봉균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원외인 장영달 전 원내대표가 도전장을 내밀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당위원장의 경우 재선의 김성순, 전병헌, 최규식 의원 간 3파전으로 보는 시각이 유력하다. 김 의원이 구 민주계를 대표하는 주자라면 전 의원은 순화규계, 최 의원은 정동영계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기도당위원장으로서는 3선의 이종걸, 재선의 김진표, 문확진, 박기춘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 가운데

문 의원은 최고위원 출마 쪽으로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4·9 총선에서 6명의 의원을 배출한 충북도당은 재선의 김종률, 이시중 의원이 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김 의원은 최고위원 출마도 저울질하고 있는 상태다.

제주도당위원장은 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등 재선 의원 3명이 돌아가면서 한번씩 위원장을 맡자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이번에는 김우남 의원이 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통합민주당 원외계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종교계 인사들과 만나 남의 탓만 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현 시국에 대한 문제의식도 해결능력도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호남 출신 與의원 릴레이 인터뷰

곡성출신 비례대표 이정현의원

“지역 현안 중앙 지원 최대한 끌어 낼 터 호남도 실속 챙기는 정치적 선택 해야”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으로 18대 국회의 정식 개원이 미뤄지고 있다. 그러나 18대 국회의 임기는 이미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됐다. 이에 광주일보는 광주·전남에 연고성 둔 한나라당 의원들을 차례로 만나 18대 국회에 임하는 자세와 지역발전에 대한 견해를 들었다.



가치 현안 사업이 많다. 이에 대한 입장은. ▲한나라당 호남 출신 의원들은 물론 민주당 의

이정현(50·비례대표) 의원은 곡성 출신으로 광주 살레시오고를 졸업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전 대표의 입 역할을 하는 최측근으로 1984년 구용상 전 광주시장의 선거를 도우면서 민주당에 투신한 이래 신한국당·한나라당에서 전략기획단장·정책분석팀장 등을 지낸 전직총무이다. -정치 입문 25년 만에 국회의원이 됐다. ▲국가 선진화, 광주·전남 발전을 위해 소신껏 일하겠다. -호남지역 발전 방안에 대한 구상은.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다. 먼저 광주·전남에 최첨단 과학중소 기업도시를 조성하는 것이다. 또 남해안을 중심으로 L(레저), S(스포츠), T(여행)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5천900km의 리아스식 해안과 다도해, 수많은 고찰과 산, 특히 음식문화와 전통 문화예술 등 수많은 관광 보고를 이용하지는 못한다. 이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삼일위를 문화관광위로 신장했다. -광주·전남에는 나주 혁신도시 건설,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F1 사업, J프로젝트 등 여러

의원들과 협력 체계를 유지하면서 최대한 중앙 지원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다. 다만, 광주시와 전남도 등 지자체들이 보다 창의적이고 열정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한다. 지난 10년동안 좋은 여건과 기회를 허비한 것이 안타깝다. -호남인에 대한 바람이 있다면. ▲이제는 실속과 실리를 챙기는 정치적 선택을 했으면 한다. 다양한 인물과 정당의 배출을 통해 상호 경쟁하게 했을 때 그 열매는 지역민이 가져갈 수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李대통령

“盧정부때 처리했으면 ‘쇠고기 파동’ 안났다”

이명박 대통령은 7일 ‘쇠고기 파동’과 관련, “그때(노무현 정부) 처리했으면 이런 말쟁이 안 났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독교 지도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가 “일은 그때 다 벌여 놓은 것”이라고 말하자 아쉬움을 표명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촛불집회”에 대해서 “세상을 밝게 하려는 그런 점도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한다”면서 “결과적으로 나라가 잘 돼야죠. 그 분들의 목소리로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은 사실상 재협상에 준하는 각종 정부 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성을 제기했고, 일부는 재협상을 시작하면서 대국민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꼬일 대로 꼬인 정국을 대통령이 잘 풀어야 한다는 당부의 말도 나왔다. 조용기 목사는 “대통령이 재협상에 준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국민이 알아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면서 “대통령의 정확한 의중과 구체적인 해결책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이 가동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盧 前대통령

“정권퇴진 주장은 헌정질서에 맞지않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7일 쇠고기 재협상을 촉구하는 촛불시위 등과 관련, “정권퇴진 주장은 헌정질서에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이날 경남 양산시 원동면 에덴밸리 리조트에서 열린 제9회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정기총회에서 축사를 통해 “오늘 일부 신문에서 ‘재협상에서 정권퇴진으로’를 제목으로 뽑았다”며 “원칙적 관점에서 쇠고기 협상이 아무리 잘못됐다 할지라도 정권퇴진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헌정질서에 맞지 않고 민주주의 질서속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또 촛불시위의 청와대 행진에 대해서도 “청와대에 살아보셔 아는데 청와대 행진은 별다른 소득이 없는 만큼 안했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이어 “정당이 정국을 주도하고 대통령보다 큰 권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회가 하는 일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노 전 대통령은 촛불시위에 대해 “이처럼 위력적인 움직임에 예측하지 못했다”며 “정말 시민이 무섭다고 다시 생각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靑 비서관 ‘사탄의 무리’ 발언 파문

촛불집회 배후세력설 주장 인터넷 사이트 등 비난 쇄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한달 이상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비서관이 ‘배후세력설’을 주장하면서 집회를 비난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청와대와 일부 기독교매체 등에 따르면 추부길 홍보기획비서관은 지난 5일 한국기독교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기도회 축사를 통해 촛불집회와 관련,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으로 시작된 이 문화집회는 이제 정치세력과 이익단체의 개입으로 정치집

회로 변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 비서관은 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는 성경 마태복을 구절을 인용하며 “이 말씀이 지금 온 국민의 비난을 받는 대통령의 마음일 것”이라며 “이 세상 어떤 아버지가 자식에게 돌을 쥐어주겠느냐, 이 세상 어떤 위정자가 국민에게 악의 씨앗을 뿌리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마치 모든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 걸린 것처럼 순수한 학생에게 촛불을 주고, 마치 이 나

라 정부가 미국인이 버리는 것을 국민에게 먹이듯 호도하고 있는 세력은 거짓으로 이 세상을 움직이고 이 나라를 흔들고 있다”면서 “일부 방송과 세력”을 배후로 지목하기도 했다. 추 비서관은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는 과장과 거짓으로 무장한 세력들에 의해 커다란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이러한 왜곡과 과장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세력이 누구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거듭 ‘배후세력설’을 주장했다. 그는 특히 축사를 마치면서 “사

탄의 무리들이 이 땅에 판을 치지 못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감히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추 비서관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축사에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은 맞다”면서 “그러나 ‘사탄의 무리’는 기도문 마지막에 통상적으로 하는 용어로, 일부 인터넷 매체가 촛불집회 참가자들과 연결시킨 것은 터무니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추 비서관의 축사 내용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알려지자 누리꾼들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렴한 광고비 뛰어난 광고 효과!

광고접수 및 문의 직통전화: 227-9600 FAX: 227-9500

새롭고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서구점 ☎ 361-8111 북구점 ☎ 529-8111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저자직강/한국경제TV·부동산TV강사진

제18회 공인중개사시험 새출신 전국 수석 2명 배출(현태환 남 48세 최영아 여 31세)

개강 7월1일 주야 **문제풀이특강** 교용보험가입근로자교육비환급

(첫진도 시작반) [핵심이론+단원별문제풀이강좌] 수강료 50%·80% 환급 사전 접수비발

●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 전문학원(전국33개 학원체인) ● 최고의 교수진들로 강의 질하는 학원1위 ● 선배중개사분들이 추천한 1등학원 ● 믿음과 신뢰를 주는 학원1위

합격률1위 전국수석합격 **새롭고 행정고시학원** 서구점 ☎ 361-8111 동성동 서구청 앞 광주은행 건물 2층 북구점 ☎ 529-8111 개림동 구시정사거리(충동동)대한일보 옆 충효빌딩 6층

=정부는 올해안에 소방공무원 2,228명을 충원할 예정이다(성황리 강의중)=

9급 공무원 완전 대비

행정직 교정직 서문직 관세직 감사직 법원직 검찰직 교정직 보훈직 소방직 전자직 특직직 통역직 건축직 보건직

※ 보건직 전남23명, 전북16명 9월27일, 경기56명 8월2일, 서울29명 (열강중) ※

금년 중·하반기 시험 **개강** 합격수강 회원모집

● 전일: 제1회 공·경 9월27일 209명 ● 경기: 제2회 636, 전북119명 공채 ● 서울: 교원86명, 임원 720, 1,138명, 기타 817, 666명

6월2일 (주·야반모집) (현재예약접수중)

● 6개월 (준)회원 80만원 ● 1년 (정)회원 120만원 ● 합격시까지 170만원

=감(感)이 좋은 학원! 『無等』을 찾아주세요!! =

www.mdgoel.co.kr 222-4560

= 합격률 전국 1위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재직자 수강지원과정 **수강료 50% 환급과정** 현재상담접수중

♣ 현대적 학습시설 ♣ 첨단학습보조 시스템 ♣ 과학적 평가시스템 ♣ 창업 및 취업 센터 운영

전남고시학원 (전남여고 건너편) 236-2467~8 고객무료전화 080-0236-2468